

기본신앙교육자료 《 기 도 》

「한 편의 시」 기 도	11
「한 편의 시」 기도의 능력	12
「한 편의 시」 다리굴 기도굴	14
1.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의미)	15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15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이다	15
기도는 삼위와 사랑하는 시간이다	16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16
기도는 교통이다. 사랑이다 조건이다. 능력과 권세다	16
기도는 호흡과 같다	17
기도는 일하는 것과 같다	18
기도는 신앙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18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조건을 세우는 것과 같다	19
기도는 함정에 빠졌을 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19
기도는 무기와 같다	19
기도는 차의 기름과 같다	20
2. 기도의 중요성	21
기도는 신앙생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21
기도가 신앙의 핵이다	21
섭리사를 일으킨 핵은 기도이다	22

구하면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능히 주신다	22
진실하고 간절한 말로 많은 것을 해결하고 얻는다	23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운명이 다르다	23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크다	24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24
걱정 대신 기도하여라	24
사람과 안 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하라	25
 3.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26
기도하는 목적	26
기도는 창조목적을 최고로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26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27
하나님께 ‘말’을 하고, ‘의논’을 해야 하나님이 알고 행하신다	27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27
줄테니 간구하라	28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	28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28
기도하고 받아야 기쁘기 때문이다	29
기도해야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하다	29
말 안하면 모르기 때문이다	29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해결이 된다	29
기도해야 귀하게 보고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30
기도를 듣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고 천국가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	30
기도로 휴거된 영과 육을 관리하자	30
궁금한 것은 꼭 기도하여 삼위께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된다	31

기도하는 것이 조심하는 삶이다	31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31
기도해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31
4. 기도의 종류	33
1) 새벽기도	33
새벽기도의 중요성	33
하나님은 새벽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쓰신다	33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34
새벽시간을 지켜라 제 시간에 기도하는 자 1등, 두 번째 일어나서 하는 자 2등	35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1시나 2시나 3시나 똑같이 힘들다	35
새벽에도 온전하게 단장하고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	36
새벽에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36
성령이 깨워주실 때 바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37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다	37
새벽기도 집에서라도 꼭 기도해야 된다	37
늦게 일어나나 일찍 일어나나 전심으로 기도함이 중하다	38
2) 대표기도	38
3) 축도	39
4) 조건기도	39
5) 금식기도	40
6) 절식 (기도)	41
7) 감사기도	41
8) 회개기도	44
9) 중보기도	45

10) 합심기도	46
11) 민족, 국가를 위한 기도	47
5. 기도의 좋은 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49
기도하면 삼위와 일체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49
기도하면 총명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	49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시해 주신다	49
기도를 깊이 하면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알 수 있다	49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주신다	50
기도하면 줄 것을 다 주신다. 구하고 찾아라. 합당하면 다 들어주신다	50
기도하면 삼위께서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	51
기도해야 생각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신다	51
기도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하게 된다	52
기도해야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53
기도하면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깨달아진다	54
기도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해주신다	54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일어난다	54
기도하면 자기 모순을 찾을 수 있다	55
기도하면 공적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55
기도해야 영적으로 느끼고 행하게 되니, 현실을 확실하게 느끼며 살게 된다 ..	55
깊은 기도를 하면 영계에 들어간다	56
기도하면 꿈을 통해 흔적 체험을 한다	56
기도는 마음만 가도 자기 혼과 영이 가서 돕고 해 준다	56
명철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57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복을 받는다	57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57

기도하면 기억 안 나던 것이 기억난다	58
기도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58
기도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58
6.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0
사랑과 감사의 기도다	60
온전한 기도	60
기도의 방법	61
기도의 순서	62
기도는 항상 매일 해야 한다	63
평소에 생활 속에 대화다	64
1대 1 대화이다	65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	65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한다	66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	66
기도는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68
기도도 배워야 뜻있게 지루하지 않게 오래 한다	69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	69
기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70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된다	71
오래 한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71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하라. 묵도 명상기도 하지 말아라	71
잡념을 없애고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73
피곤해도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	74
기도는 살 만큼은 하여라	75
<기도>는 일사천리로 자기가 하는 것이다	75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의향이 생기도록 기도하여라	75
기도의 응답	77
기도를 보물이 되게 하여라	78
확실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79
마음과 생각이 극히 감동될 때까지 기도하라	81
기도는 표가 나게 해야 한다	81
삼위와 예수님을 각각 불러야 줄 것을 주시며 함께 도우신다	81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82
하나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82
삼위와 이 시대 합당한 대화를 해야 한다	82
심정을 알아 드리는 기도	82
기도로 삼위의 심정을 깨달아라	83
기도할 때도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해야 된다	83
마음이 굳건하도록 깊이 기도해야 한다	83
큰 기도를 해야 한다	84
프로급 기도를 해야 한다	84
깊은 기도를 하여라	85
깨끗이 하려면 기도를 깊이 해야 한다	85
기도하기 전에, 사탄을 먼저 쫓아내기다	86
기도하여 신령한 생각을 만들어라	86
7.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87
기도 제목	87
12가지 생명을 위한 기도	87
휴거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88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88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90
가정 민족 세계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라	91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한다	92
섭리사 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92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라	92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93
8. 기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94
삼위와 멀어지고 육적 생활을 하게 된다	94
기도 안 하면 신앙이 넘어진다	94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침범한다	95
기도를 안하면 시험에 든다	95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과 걱정의 날들을 못 막아낸다	95
기도를 쉬면 은혜의 강이 마르게 된다	95
차의 기름 떨어지듯 모두 중지하게 된다	96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96
9. 기도와 실천 (책임분담과 기도)	97
기도 해 놓고 행해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97
기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97
자기가 기도해야 한다	98
10.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99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행하신다	99
약속한 것을 하였으면 하나님이 말을 안 했어도 그 행한 일로 응답했다고	

생각해도 된다.	99
생각에서 잊으면 기도한 것을 주셔도 모르고 산다	100
11.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101
12. 예수님과 기도 사연 / 기도 생활	102
13. 기도 사연 / 기도 생활	104
14. 월명동과 기도	109
15. 기타 기도 말씀	111
기도에 대한 비유 말씀	111
16. 성경인물과 기도	112
모세, 에스더, 다니엘, 엘리야, 예수님의 기도	112
아브라함과 기도	112
엘리야와 기도	113
다윗과 기도	113
솔로몬과 기도	114
17. 기도에 대한 성경구절	115

「한 편의 시」 기 도

1. 찬바람이

저대지에
불더라도
찬서리가
저높은산
에내려도
제발이나
내가슴에
내마음에
내리지를
말아다오

2. 비바람이

저허공에
몰아쳐도
눈보라가
지구촌을
뒤덮어도
제발이나
내가슴에
내마음에
사랑하는
내사람들
내형제들
내민족에
불지말고
쏟아지도
말아다오

3. 가난이여

천대멸시
미움다툼
고독이여
질병재난
염려고통
전쟁이여
무지핍박
거짓음모
배반악평
무정이여
제발이나
저지옥에
사라지고
내가슴에
내마음에
내삶속에
나와나의
이웃과나
의형제들
내사랑하
는민족에
지구촌에
내리지를
말아다오

〈영감의 시집 2〉

「한 편의 시」 기도

나를원수	원수한테
처럼하고	갓은해를
나를미워	다받고서
하는자들	원통하고
주리거든	억울해도
먹여주고	주님위해
혈벗으면	땅을위해
입혀주고	나를위해
잘못없어	원수위해
헤매이면	기도하며
거할곳을	내가참고
주옵소서	하늘일만
나를미워	하리로다
하는자들	
너무많아	
심판하면	
소돔땅이	
되나이다	

<시의 여인>

「한 편의 시」 기도의 능력

내, 사람에게 말 못할 심정과 사연을
주께 고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심정과 사명을 알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나이다

천지주관 인간주관 하시는 하나님이어
나의 걱정 나의 고뇌를
주께 고하옵니다
궁홀히 여기시옵소서
그리하면 영원히
몸과 마음 바쳐 당신 위해 살리이다

기도는
권능과 세력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나니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는구나

기도는 대화
하늘과 기도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 떨어져 남남 되고
결국 원수가 되지
이제껏 내가
티끌만큼 수고해서
천배만배 태산만큼 얻은 것은
기도해서 받은 것이지

저 하늘의 별같이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그 중의 나 하나 외로이 서 있더니
십 년 이십 년
한 시대와 한 역사가 흐르니
이제 하늘은
나의 이웃
나의 부모
나의 애인이 되고 말았지

기도는
최고의 방법
큰 뜻을 이루려면 큰 기도를 해야지

사랑하는 애인도
친구도
부모도
대화 안하면 멀어지듯
사랑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두 대화하고 기도해서
깊은 애정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세상 사는 보람 있고
천국같이 살다
저 하늘 저 나라를 갈 수 있지

<영감의 시집 2>

「한 편의 시」 다리굴 기도굴

다리굴 그동굴
한겨울 눈보라 피하여
깊이도 들어가
집단을 깔고서
인생의 씨름을 하면서
기나긴 기도를 했을 때
인생의 그슬픔 눈물이
그칠줄 모르고
흘러만 내렸네
예수님 내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내 너를 가르쳐 주리니
내 말만 듣고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으며
새로운 수많은 진리를 깨우쳐 주셨네
한번의 기도
영계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날짜가 흐른지
알수가 없으니
굴에서 나오면
계절이 변해져 있었고
육체는 말라져
서지도 못하고 있었네
그래도 내영혼 빛이나
웃으며 있는 것 보았네

1.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의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대화하고 통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항상 민족, 세계, 섭리, 개인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고, 간청하는 말이기도 하고,

솔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털어놓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말>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얻습니다.

<기도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과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과 말을 더 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성령님과 말을 더 하게 됩니다.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화하는 시간이다.

어느 때는 자기가 전화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화가 걸려 온다.

직접 걸려 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걸려 오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화인지 모르고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기도는 삼위와 사랑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사랑’ 이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 되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되, ‘절정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된다.
응답은 끝에 온다. 사랑은 쏟아야 된다.

- ◎ ‘기도하는 것’ 은 ‘삼위와 사랑하는 시간’ 이다.
하나님, 성령, 성자와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 ◎ 〈기도 안 하는 자〉는 ‘사랑이 깨지는 자’ 이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교회 성전〉과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몸으로 쓰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 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교통이다. 사랑이다 조건이다. 능력과 권세다

- ◎ ‘기도는 교통이다’ 교통이 끊어지면 죽어요. 기도 하면 살았다. 교통 하니까.
- ◎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하면 사랑받게 되고, 휴거역사도 이뤄졌어요.
기도함으로.
- ◎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안 풀어줄 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 ‘기도는 조건이다’

돈 줘야 물건 주지요? 일 해줘야 돈 받지요? 일 해야 건축 되지요?
걸어가야 목적지를 가지요? 이런 조건이다.

◎ ‘기도는 능력과 권세다’ 했어요. 겪어본 결과로.

◎ ‘기도는 표적이 일어난다’

태양아 멈춰라! 시간의 표적이 일어났지요?

이걸 못 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간적 표적을 잘 안 일으켜주지 않겠습
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부모가 이끌고 가듯이 이끌고는 가십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가령, <기도>가 얼마나 중한지 알려 줄 때,

‘<기도>는 사람이 살아갈 때의 <호흡>같이,

혹은 <집>같이, 혹은 <돈>같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라고 비유해 주거
나, 또는

‘<기도>는 <음식>같이 매일 필요하다.’ 라고 비유해 주면 절실하게 깨닫
습니다.

비유를 통해 <기도>가 얼마나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한지를 알게 해 줍니
다.

• <기도>는 ‘호흡’ 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설 때, 먹을 때, 운동할 때도 늘 쉬지 않고 호흡을 합
니다.

호흡이 끊기면,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할 일도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누가 좋다고 추천해 줄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 호흡의 중요성, 필요성’ 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때 먹는 양식같이 절대 필요하고,
<기도>는 사람이 살아갈 때 호흡하는 것같이 절대 필요하다.

또 매일 배설물을 배설하는 것만큼 필요하다.

고로 ‘매일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기도는 일하는 것과 같다

23. <기도>는 ‘일하는 것’과 같다.

일하면 그 일이 되듯이, 기도하면 즉시 원하는 일이 된다.

24.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25. 할 일을 조금씩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열심히 하면 바로 끝낸다.

기도도 그러하다.

36. <기도>는 ‘일’이다.

일하는 만큼 그 일이 되듯이, 기도하는 만큼 그 일이 된다.

<일하는 것>이 힘들듯이 <기도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 <기도>는 ‘행위’와 같습니다. <기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로도 행하고 <생각>으로도 행하고 <몸>으로도 행하며

풀 것을 풀고, 고칠 것을 고치고, 쌓을 것을 쌓고,

찾을 것을 찾고, 받을 것을 받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일>은 조금만 하면, 조금밖에 표가 안 납니다.

<큰일>일수록 조금 하면 표가 안 납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큰 것>일수록 많이 오래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신앙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기도>는 ‘신앙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신앙 생활’을 못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조건을 세우는 것과 같다

- 하나님이 “<기도>하면, 잘되게 축복해 주겠다.” 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 <성령님>이 돕고 함께해 주시니,
꼭 <성령님>을 찾고 부르며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는 함정에 빠졌을 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 <기도>는 ‘길을 가다가 외딴 지역에서 함정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듣고 꺼내 줍니다.
-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함정에 빠진 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계속 행하게
됩니다.
<진정 온전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려움에서 꺼내 주는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가 이와 같이 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더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무기와 같다

이 시대 말씀의 미사일, 말씀의 탱크입니다. 기도의 총, 기도의 미사일입니다.

사랑의 미사일, 사랑의 원자폭탄입니다. 각종 전투기 같은 사명의 무기들입니다.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 사탄을 주의 이름으로 멸해야 사탄과 악인들이 패합니다.

8.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적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레이더망으로 보는 시간과 같다.

고로 적이 오면, 알고 공격해서 없애게 된다.

10. 기도로 사탄과 악한 자들을 공격하여 파괴시켜야 된다.

11. 기도는 전쟁 때 군사들이 적을 공격하여 멸하게 하듯 한다. 기도할 때 사탄과 악한 자들을 공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입에서 나간 대로 검이 되고, 총알이 되고, 미사일이 되고, 원자폭탄이 되어 적을 멸하게 된다.

19. <기도>는 ‘무기’ 다.

<말씀>이 ‘총’ 이라면, <기도>는 ‘총알’ 과 같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무장하고 행해야 된다.

기도는 차의 기름과 같다

- <기도>가 없으면,

<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서 ‘모두 중지’ 하고 말게 됩니다.

- 힘 있게 열심히 하려면, <정신 일도 하여,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 <기도>해야 ‘힘’ 이 오고, ‘용기’ 가 오고, 자신 있고 담대해집니다.

2.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신앙생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잘 견디는 자>는

이미 신앙이 망가지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른 자’입니다.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파서 먹듯이, 하루만 잠을 안 자도 졸려서 자듯이,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못 견디고 하는 자는 ‘살아 있는 자’입니다.

매일 하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새벽 제단을 폐하고도 잘 견디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의 거리’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도 영원히 죽고,

‘육신’도 죽은 자를 보면 깨닫게 된다.

기도가 신앙의 핵이다

▶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됩니다.

▶ <기도>로 ‘인생들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 <기도>가 ‘신앙의 핵’입니다.

▶ <일반적인 것 열 개>를 행한 것보다, <기도 한 개>를 행한 것이 더 큼니다.

▶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 <기도>해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 하나님은 <청산유수>로 기도하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섭리사를 일으킨 핵은 기도이다

- <섭리 역사를 일으킨 핵>은 ‘기도’입니다.
 - <기도>하니 ‘전도’ 되고,
 - <기도>하니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 하게 되고,
 - <기도>하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고,
 - <기도>하니 ‘시대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 <기도>하니 ‘신령한 영의 역사’를 펴 오게 되고,
 - <기도>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 섭리 역사 44년 동안, 모두 <기도>해서 얻고 해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행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능히 주신다

1.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에게 구하는 것보다 잘 주시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구하지 않는다.
2. 사막을 소유한 주인에게 모래 한 차가 필요하다고 사정하면 그냥 주지 않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천하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자기 사연을 고하며 달라고 이야기하면, 합당하면 다 주신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하물며 구할 것을 구하면 기뻐하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4.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스럽게 간구했을 때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일수록 필요한 것을 달라고 더 간구해야 된다.

5.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하는 것은 말만 해도 들어 주신다.

6.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능히 주신다.

7. 자신이 수고하여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진실하고 간절한 말로 많은 것을 해결하고 얻는다

11.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게 한다.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12.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지극히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정말 잘 들어 주신다.

◆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말’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말>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일을 합니다.

<말>로 못 하면 <수화>나 <점자>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말>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얻습니다.

<기도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는 대화>가 이릅니다.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운명이 다르다

•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어서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 <기도한 삶>과 <기도하지 않은 삶>은 ‘삶의 운명’ 이 다릅니다.
모두 <기도함>으로 ‘축복’ 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아멘.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크다

7.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크다.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사를 폐하지 말아라.

- ◇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으니(약 5:16),
의롭게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기도하면
합당한 것은 즉시 해 주십니다.
- 이 세상에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책임지고 해결해 줄 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게 절대로 도와주십니다.

-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답’ 입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여라

10.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껏 내가 구했는데 안
준 것이 있느냐. 부담 갖지 말고 또 구하여라.” 하신다.

12. 기도한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
아라.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려고 특별히 상

황을 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때를 조금 더 기다려라.

1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상으로 유능한 자가 없고, 하나님 이상으로 실력 있는 자가 없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으면 걱정이 필요 없다.

14. 걱정 대신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알아서 좋게 해 주신다.

사람과 안 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하라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면 속이 시원하다.

자기가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하고 아시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은 말을 다 이해를 못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모르고 지혜가 없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한계대로 알기 때문이다.

고로 사람과 안 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하여라.

3. 사람은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잘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자주 와서 돌봐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다.

3.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

-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대화, 사랑, 실천’ 이 일어나고,
‘언제’ 되고, 더 나아가 ‘역사’ 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창조목적을 최고로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 새벽부터 기쁨 뛰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대 구원>을 받고 <휴거>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 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개성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귀하게 깨달아야,
매일 기쁨 뛰며 <삶의 프로그램>을 즐기지 않고 더하며 살게 됩니다.

<기도>하면 -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제대로 정신 차리고 행하게 된다.

-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최고로’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1.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때다.

2.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만나자고 하셨으니, 간절히 기도하여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2.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하는 것’ 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 과 다르다.

3.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같이 행하는 것’ 이다.

하나님께 ‘말’ 을 하고, ‘의논’ 을 해야 하나님이 알고 행하신다.

2. 하나님께 ‘말’ 을 하고, ‘의논’ 을 해야 하나님이 알고 행하신다.

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면, 자기 육성으로 행하게 된다.
고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화’ 를 먼저 해야 된다.

4.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행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16. 왜 기도하라고 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 행하실지라도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 행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혼자 하는 것이 되고 인성으로 흘러가 버린다.

18.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육성이 되어 아무것도 아니다.

19.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인성으로 흐르지 않는다.

20.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21.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지를 알수 있다.
30.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 이 받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

줄테니 간구하라

6.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신다.
7. 일한 만큼 일이 이뤄지듯이, 구하는 만큼 이루어 주신다.
변화가 없이는 다음 목적지에 못 간다.

45. (하나님) 나에게는 너를 도울 것이 풍부하게 있나니, 바닷물같이 많다.
그러므로 너를 위해, 섭리사 위해, 민족과 세계를 위해 마음도, 생각도 쉬지 말고 구하여라.
말로 떡을 하면 세계가 다 먹는다. 말로만 간구해도 세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

- ◇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얻으려면 마음과 생각으로 먼저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일, 간구의 일입니다. 달라고 해야 줍니다. 구해야 줍니다.
주면, 저마다 그것을 쓰면서 행해야 됩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위와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그 육신이 되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1. 하나님이 뜻이 있어 행하실지라도, 기도하여야 함께 행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기도하고 받아야 기쁘기 때문이다

11. 기도하고 받아야 기쁘다.
12.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가치도 모르고, 기쁘지도 않다.
13. 기도해야 될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하여라.

기도해야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하다

- 기도해야,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 합니다.
기도해야,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하여 ‘영의 능력’ 으로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회’ 가 됩니다.

말 안하면 모르기 때문이다

구할 것이 정말 많고, 기도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간구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본이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고,
구하고 얻고 살아야 자기만족을 하며 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해결이 된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만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기도해야 귀하게 보고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기도해야, 똑같은 것이라도 귀하게 보고 깨닫고 행하게 된다.

<기도>해야,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귀하게 깨닫게 되고, 실천까지 하게 된다.

기도를 듣고 공홀히 여기시고 구원받고 천국가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 공홀히 여기시고,
그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세계로 와서
고통을 안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공적이 자기에게 돌아와
영이 영원토록 빛이 나고 누리며 살게 된다.

기도로 휴거된 영과 육을 관리하자

휴거되고 나서 그냥 태만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휴거가 점점 시들어 버리는 꽃같이 되고 만다.

저마다 <기도>로 ‘휴거된 영과 육을 온전하게 관리하기’ 다.
<기도>로 ‘시대 섭리사의 가치를 깨닫기’ 다.

궁금한 것은 꼭 기도하여 삼위께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된다

1. 삼위와 예수님은 주인이라 다 아신다. 고로 진실로 의문된 것을 물어보면 답을 주신다.
2. 궁금한 것은 꼭 기도하여 삼위와 예수님께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된다. 자기 자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것이 조심하는 삶이다

14.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극히 조심하는 삶’ 이다.
15. <말씀>을 절대시함이 ‘스스로 조심하는 삶’ 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 가 되나니,
매일 ‘선악 간’ 에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하여라.

기도해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 모르는 만큼, 사탄 · 귀신 · 악한 자들이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삼위와 대화하며,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탄 · 귀신 · 악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12. 기도하면

사탄과 귀신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다스린다.

13.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 명하여 사탄과 귀신이 물러가게 한다.

자기 이름으로는 물러가지 않는다.

4. 기도의 종류

1) 새벽기도

새벽기도의 중요성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 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 을 가지고 기도해라.
사람은 어디서라도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왕 만들 것, 완벽하게 만들어라.

기어이 새벽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고 만들어라.

<새벽>이 ‘황금 시간’ 이다. ‘하루의 중심 시간’ 이다.

새벽에 기도하니, 하늘의 세계도 황금이더라.

그만큼 <새벽>은 ‘황금 같은 시간’ 이라고 알려 주신 것이다.

<때>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제때, 제 할 일을 해라.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 황금기의 때에

<새벽예배에 안 나오는 자들>은 ‘순간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이다.

하나님은 새벽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쓰신다

1.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자다.

11. 새벽을 귀하게 쓰기에, 새벽 시간이 살아났다.

12. 모두 깨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고 새벽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쓴다.”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자기도 귀하게 써 보아야 깨닫고 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새벽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셨으니
처음에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도 같이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므로 <처음>인 ‘새벽’ 때와 <나중>인 ‘자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새벽에 꿈이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어디에 있으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새벽에 사탄이 시간을 뺏습니다. 그러니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에 건강 등 각종으로 기도해 주니, 모두 각자 받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기도하고,

기도할 핵심들이 무엇인지 미리 기록해 두었다가 기도해야 합니다.

◆ <새벽기도 시간에 잘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들>은 큰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을 보면 ‘대낮’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집을 짓는 자가

매일 현장에 나와서 꾸준히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 <새벽기도를 하는 자>는 ‘총명’ 하고 ‘신령’ 합니다.

또한 ‘영력’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단상에 서거나 순회를 다니면, 확~~ 표가 납니다.

◆ <새벽에 일어나 진정 기도하는 자>는

마치 자기 애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와 같아서

<눈빛>도 빛나고 <생각>도 빛납니다. 고로 표가 납니다!

◆ <새벽기도를 안 하는 자>는 마치 자기 애인을 못 만난 자와 같아서

<맥>이 없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 <잠을 많이 자서 피곤함을 푼 것>은 ‘육체’에만 해당됩니다.

◆ <새벽>은 ‘영적으로 가장 총명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날의 계시 90% 이상’이 옵니다.

<단상의 말씀>도 거의 ‘새벽에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 ‘사업’도 어렵습니다.

◆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잘 되려면, 꼭 ‘새벽기도’를 하여라.” 하셨습니다.

◆ 모두 한번 생각해 봐요. <날이 새고 나서 일한 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한 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매우 큼니다.

이와 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은 자>는

<새벽을 깨워 기도한 자>를 영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영력도, 총명함도, 신령함도, 말의 능력도 못 따라잡니다.

설교하는 것이나, 강의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표가 납니다.

새벽시간을 지켜라 제 시간에 기도하는 자 1등, 두 번째 일어나서 하는 자 2등

1. 새벽에 제시간에 깨었을 때 일어나 기도하는 자는 1등이고, 다시 자고 두 번째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는 1등의 기회를 잃은 2등이다.
2. 만사 모든 삶의 이치는 동일하다. 1등 하려면 힘들다.
3. 1등은 처음서 끝까지 총집중해서 하는 자다.
4. 1등은 금메달이다. 모든 자에 비해 흠 없이 한 자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1시나 2시나 3시나 똑같이 힘들다

55.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1시에 일어나나, 2시에 일어나나, 3시에 일어나나 ‘일어나는 것’은 똑같이 힘들다. <힘든 과정>은 다 거친다.

일찍 ‘제시간’에 안 일어나면, ‘받을 것’을 못 받는다.” 하셨습니다.

56. 정녕코 <제시간에 하는 것>이 ‘제 짝’이다.

<제시간>에 일어나면 ‘제 짝’을 찾아 하니, 다 얻는다.

57. <시간>과 <일>은 ‘한 짝’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짝 없이 홀로’다. 그때는 시간이 없든지, 일이 없다.

69. 일찍 일어나나, 늦게 일어나나 힘든 것은 같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면 ‘위’에 있고, 늦게 일어나면 ‘밑’에 있다.

70. <제때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다.

<생각>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도 있다. ‘있고, 없고’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만사에 <제때 제대로 하는 것>과 <때 지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다. 극적인 차이의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새벽에도 온전하게 단장하고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같이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펴게 되고, 그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증거를 해야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받으십니다.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행실을 해야 받으십니다.

새벽에도 온전하게 단장하고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새벽에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할 일을 해야 그다음의 큰일도 하게 됩니다.

작다고 안 하면 그다음의 큰일을 못 합니다.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작다고 안 하면

그다음 기도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일을 못 합니다.

기도하고 통하는 일을 해야, 그다음 받는 일을 하고, 그다음 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기 싫어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마음으로만 일어나려 해도 일어나지지 않는다. 왕이라도 행실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없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행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깨워주실 때 바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 새벽 1시에 성령이 깨워 주시는데도 못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에서 깬데 10초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수면 상태에 있어서 또 자게 되어 기도에 실패한다.” 하고 깨닫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 이 답을 받고 다음 날에는 잠에서 깬 후 10초 안에 즉시 일어났더니, 성공했습니다! <답>을 깨닫고 실천하니, ‘문제가 해결’ 됐습니다.

◆ 그래서 깨닫고 <답>을 알았으면, 즉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다

11. 마음과 생각을 편하게만 하고 길을 잘못 들이면, 계속해서 편한 쪽으로 살아가게 된다. 잠도 8~10시간 자게 되고, 일도 안 하게 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밥까지 안 먹으려고 하게 된다. 실상은 부지런하게 할 일 해 놓는 것이 편한 것이다.

14. 새벽에도 늦게 일어나는 자는 1년 내내 늦게 일어난다. 습관이 돼서다.

반면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자는 하루만 늦게 일어나도 마음에 꺼려 바로 고친다.

15. 자기 마음과 생각과 체질과 습관을 편하게만 길을 들어서 살면, 게을러서 육신 일생, 영 영원까지 그 영향을 받아 영원토록 손해를 보게 된다.

새벽기도 집에서라도 꼭 기도해야 된다

새벽기도 때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못 나오면, 꼭 자기 위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갑니다.

늦게 일어나나 일찍 일어나나 전심으로 기도함이 중하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어느 때는 일어나지지 않을 때가 있다.
늦게 일어나나 일찍 일어나나 전심으로 기도함이 중하다.

2) 대표기도

대표기도를 할 때는 마치 가수가 노래하듯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듣는 사람들도 감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 만 명, 천 명 예배드릴 때 대표가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시고, 응답하고 끝내십니다.
고로, 대표는 국가 대표로 대회에 나간 선수같이 잘해야 합니다.
아무나 대표 기도를 하게 시켜서 그가 제대로 못 하면 전체가 손해입니다.

◇ 대표는 전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자라야 됩니다.
설교도, 찬양도, 각종 할 일도
전문적으로 최고로 잘하는 자를 세워서 시켜야 합니다.

대표기도도 사람을 의식하면

좋은 문자쓰라 어찌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설교자와의 삼각관계를 잘 연결시켜서

사적인 내용은 피하고 공적인 내용만으로 2-3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습해서 나쁠 것이 없으니 수고한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3) 축도

- 축도를 해야 예배가 끝난 것이다.
- 고로 축도를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축도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시간인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설교자가 대신하는 것이다.
- 고로 기도로 준비할 것.

주일 설교 후 축도 때,

설교원문에 나오는 축도문 대로만 축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기도 넣고 축도 되게 말아라.

4) 조건기도

‘기도는 조건이다’

돈 줘야 물건 주지요? 일 해줘야 돈 받지요? 일 해야 건축 되지요?

걸어가야 목적지를 가지요? 이런 조건이다.

- 하나님이 “〈기도〉하면, 잘되게 축복해 주겠다.” 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 〈성령님〉이 돕고 함께해 주시니,
꼭 〈성령님〉을 찾고 부르며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임금에게 신하가 허락을 받는 입장과 같습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차원을 높이게 되고,
기도로 조건을 세우니 하나님과 성령께서 행하신다.

전도하려면 이같은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3일, 7일 금식조건을 세우든지
7일, 70일, 100일, 1000일 조건 기도를 세워
사탄을 꺾고 인사탄들을 꺾는 조건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조건 기도를 하며 조건을 세우는 것도, 절식 기도를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삶과 소망’을 두고 해야 된다.
현재 고생돼도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그 희망의 힘으로 현재를 이기고 능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갈 수 있다.

5) 금식기도

행하면 되는 이때를 맞았구나.
강한 마음을 먹어야 인생 승리한다.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나는 70일 굶었어도 된다고 하고 낙심치 않았다.
너희도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갖고 행한다면 승리한다.

시대를 쫓다가 영적 전쟁 중에 사망으로 간 자들,
사탄에게 뺏긴 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다시 뺏으려 금식해야 됩니다.
사탄과 악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6) 절식 (기도)

금식할 때는 정한 기간 안에 한 끼라도 먹으면 ‘금식’ 이 아니다.
‘절식’ 이다.
절식할 때 정한 때 외에 먹으면 ‘절식’ 이 아니라 ‘소식’ 이다.

28. 기도도, 성자 사랑도, 말씀도 ‘해 주는 단계’ 는 기본 변화밖에 안 된다.

밥 먹듯이, 음식 먹듯이 ‘계획적으로 몸짜 붙이고 자신이 행해야’ 표가 나게 변화된다.

29. 7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절식 기도를 하니까 ‘체질’ 도 변화되고,
‘마음·정신·생각과 행실’ 도 확실히 변화되어 성자가 더 깊이 말씀을 주시어 깨닫게 되었고, ‘혼’ 도 더욱 변화되어 표가 났다. 또 ‘내가 기도해 주는 자들의 영들’ 을 보니, 확실히 변화된 것이 보였다.

7) 감사기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첫째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감격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각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 감각 둔한 화인 맞은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로써 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는 자는
회개 기도를 하여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전에 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여라. 받았으니 고마워해야 한다.

감사!!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감사가 적은가 하면 하나님이 지상에 천사들을 세 명을 보냈습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너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 와라. 그릇이 차면 가지고 와라.”

“너는 달라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와라.”

“너는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릇에 차거든 가지고 오라.”

천사들이 보니까 그릇이 너무 너무 커서 ‘이 그릇을 채우려면 한참 걸리겠다.’ 했습니다.

감사 그릇을 받은 천사는

‘감사하는 그릇이 차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빨리 차겠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천사 중에 금방 올라간 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였는가 하면 달라는 기도를 담은 천사의 그릇이 금방 왔습니다.
금방 차서 하나님ی 심부름을 시켰는데 금방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아니 너 아직까지 안 갔냐? 빨리 가야지. 뭐 하는 거냐?
세수를 안 했어, 옷을 안 입었어?”

“벌써 갔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것 보세요. 그릇에서 미어져 나오니
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달라는 기도지?”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차고 넘쳤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하루에 천 바구니도 더 되겠어요.”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오겠지요 뭐.”

그런데 감사하는 기도 그릇이 한 달 돼도 안 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화 말고 영감을 보냈습니다.

“야 어떻게 됐냐? 사고가 났냐?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를 조심하
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얼마나 왔어?”

“바닥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차야 가는데 언제 가지요?”

“부지런히 돌아다녀.”

“천 명에게 돌아다니면 하나 있을똥 말똥 한데 다리 아파 죽겠어요.”

“얼른 부지런히 돌아다녀.”

“지금 식으로 찾다가는 한 10년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지런히 돌아다녀. 저기 섭리사의 나라에 가봐라. 그래도 나올 것이
다.”

“섭리사요? 섭리사도 벌써 돌았단 말이에요.. 몇 바퀴 돌았는데요, 옛
날과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없다고 별로 감사도 하지 않고요, 투덜투덜
하고, 이게 섭리냐고 하고, 이게 뭐냐고 하고 그래요. 그렇게 불만 불평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개 바구니를 가지고 간 천사의 것도 안
왔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찾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섭리사는

빨리 한다고 거기서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그렇냐? 알았다. 전화 끊자.”

8) 회개기도

- <자기 죄>도 회개하고, <형제들 죄>도 회개해 줘야 됩니다.
<구원시키는 정신과 사고>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13.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 가정의 죄, 섭리사의 죄, 민족과 세계의 죄들’을 회개하여라.

14. 가정의 죄, 섭리사의 죄, 민족과 세계의 죄도 ‘자기가 지은 죄’와 같다.

지구 세상에서 같이 사니 ‘공동 책임’이 있다.

15. 공동 샘플이 더러워지고 썩으면 ‘이미 그 물을 먹고 병든 자’도 손해이지만, ‘건강한 자들’까지 병들게 되니 더 손해다.

고로 건강한 자가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청소하는 것>이 ‘회개해 주는 것’이다.

가정, 민족, 세계, 섭리사의 죄를 놓고도 청소해 주듯 회개해 주어라.

자기 몸을 수시로 깨끗하게 씻듯이,

기도로 자기 모순과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

- 항상 깊이 생각해보면, <자기 잘못>으로 온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때문에 잘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바뀌어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답을 받으면, 그 응답은 맞는 응답입니다.

- <자기 죄>도 회개하고, <형제들 죄>도 회개해 줘야 됩니다.

9) 중보기도

기도의 힘이 큼니다. 자기가 낙심했을 때 계속 누가 기도해주면 일어나게 됩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또 배우면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쓴 잔을 마시는 자가 나의 우편에서 영광을 받는 자라 하셨다.

쓴 잔 마시는 자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심정에 거슬리는 말 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존경하며 위해 주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감동 감화로 지켜 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게 기도한다.

- 특히 아픈 자들 위해 나와 함께 서로 기도해 주자.

- 시대 환난 속에 증거하며 행하는 자들을 위해 모두 기도해 줘야 한다.

기도해 줄 것, 안 해 주는 자는 형제가 고통에 떠내려가는 것 보고도 쳐다만 보는 자와 같고, 힘들어 쓰러진 자를 쳐다만 보는 자와 같다.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면 자기 힘이 그에게 간다.

행하여서 같이 먹고 같이 죽음을 피한다는 희망으로 하여라.

생명이 환난 때 넘어졌다고 버리지 말고 기도해 줘라.

전쟁 때는 적에게 경상(輕傷)도, 중상(重傷)도 당하는 것이다.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고 구하여라. 성령이 함께하신다.

자기 애인이나 아들이나 부모와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못 통해서 애간장 탈 때 통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살았는지, 죽었는지, 변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며 얼마
나 심정이 타겠느냐. 이때 누가 통하도록 중보를 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
느냐.

<섭리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시대를 증거하는 자들>과
<섭리사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이니, 잘 들어 주십시오.

8. <형제>가 넘어진 것을 보았든지 느꼈으면, 즉시 가서 도와주어라.

왜 넘어졌는지 ‘내용’은 따지지 말아라.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든지, 실수로 넘어졌든지, 누가 밀어서 넘어졌든지,
술에 취해 넘어졌든지, 췌값으로 넘어졌든지 따지지 말고 도와주는 ‘네
할 일’만 해라. <구경꾼>이 되면, 네 환난의 날에 ‘궁핍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9.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기도해 주고, 관리해 주어라.

<힘들고 어려운 생명들>, <시험에 든 생명들>, <오해하는 생명들>, <책
임을 못 한 생명들>이 있으면, 험뜯고 욕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
하지도 말고,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10) 합심기도

① 같이 기도할 때 잘 안 된다면, 개인이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② 혼자 기도할 때 잘 안 된다면, 모두 같이 합동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11) 민족, 국가를 위한 기도

항상 무시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지금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이 물에 빠졌을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에 빠지지않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가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를 탔는데 배가 뒤집어지고 있다면

배를 위해서 손대고 해야지 자기에게만 손대면 되겠습니까?

배가 안뒤집어지면 자기는 안 빠지는데.

배가 밑구멍에 구멍이 났으니까 자기만 살피지 말고

빨리 배를 살피서 주먹가지고 막든지 손수건으로 틀어막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배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다가는 자기도 빠져죽습니다.

유대 민족이 국방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백만 대군을 보내 갈 그미스를 치려고 했는데 무지 속의 상극세계가 일어났다.

현실에도 그러한 무지속의 상극세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앉아서 운(運)을 바라면 안된다. 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으면 당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바란다.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소돔 땅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

여러분은 하늘 심정에 맞는 자들이니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니느웨성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12만 명이 살아났다.

자기 방, 자기 집의 더러운 것을 청소하듯,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

고로 ‘국가’를 위해 기도해라. <국가>는 ‘자기 것’이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 손해다.

<국가>는 ‘자기 것’이니, 국가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시고 처리해 주신다.

기도하지 못한 만큼, 이미 손해가 간 것이다.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 드러내고 행하셨다.

자기와 가정,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 자기를 살려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혼자 살아나도 아무도 없으면 혼자 못 살아간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여 얻는 것도 크지만

가정, 민족, 세계를 위해, 섭리사를 위해 기도해야

더 얻게 되고, 더 크게 얻습니다.

<민족>도, <세계>도 ‘한 명’만 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민족과 세계의 운명’이 좌우된다.

<섭리사>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가 받을 화를 면하게 하신다.

<기도>가 그만큼 큰 것이다. 이를 깨닫고 기도하여라.

5. 기도의 좋은 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면 삼위와 일체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 ▶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됩니다.
- ▶ <기도>로 ‘인생들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 ▶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 ▶ <기도>해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총명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

10. 기도해야, 육도 혼도 영도 제대로 보고 듣고 분별하여 제대로 알게 된다.

11. 기도하면, 육도 혼도 영도 총명해진다.

19.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평소에 하는 마음과 생각과 달라진다.

20. 기도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다.

24.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시해 주신다

기도하면, 꿈이나 말씀이나 자연 계시로 보여 주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시해 주신다.

기도를 깊이 하면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알 수 있다

〈기도〉를 ‘깊이’, ‘간절하게’, ‘정한 시간’에 꾸준히 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뜻의 내용’을 깨닫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역사’를 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면 줄 것을 다 주신다. 구하고 찾아라. 합당하면 다 들어주신다

〈기도의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기도하면, 하나님은 ‘줄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만 주고, 안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뺏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것〉은 ‘완전한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사탄도 힐문하지 못하고 뺏어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구하라는 말씀은,
그동안 설교로 참 많이도 해 주었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 책임분담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인간 책임분담’입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분담’입니다.

2. 깊이 기도하면, 〈구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하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찾을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찾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깨닫고 두드리게 된다.

3. 구할 것과 찾을 것과 두드릴 것이 없어도,

기도하면 자신이 구할 것과 찾을 것과 두드릴 것을 알게 된다.

4.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주신다.

◆ 스마트폰끼리는 서로 통하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의 생각>과 똑같이 만들어야 ‘삼위’와 통합니다.

◆ <삼위의 생각>과 똑같이 맞으면

‘삼위’와 통하고, 그때 삼위는 ‘응답’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성령과 함께 ‘응답’하십니다.

안 맞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 기도할 때도 <삼위의 생각과 맞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안 맞으면,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 사람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 대답하고,

안 맞으면 이유를 대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삼위께서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

9. 기도하면 그날그날의 삶의 방향을 얻게 된다.

10.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날그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기도해야 갈 길도, 할 일도 생각나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기도해야 생각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신다

기도해야 -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생각>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알려 주십니다.

② 기도해야 - <방향>도 주시고 <방법>도 주십니다.

③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 <자기 문제>도 알게 되고 <인생>도 알게 됩니다.

④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 <자기 신앙>도 달라지고 <구원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⑤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하심>도 달라집니다.

• <기도>는 마치 ‘일’ 과 같다고 했지요? 일하는 것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달라지고,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됩니다.

⑥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되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감동’ 을 시키며 도우시고,

<찬양>할 때는 ‘찬양의 은혜’ 를 주시며 도우신다.

기도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하게 된다

마음은 자기 육신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서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귀가 듣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이리저리 출렁거리며 기울어져 쏟아 집니다. 마음에 따라 영도 육도 끌려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로 향하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함께하시니 자기 생각, 두려움, 불안함,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성이나 노는 것으로 꾀는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TV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세상 유혹을 자르고 이기

게 됩니다.

기도하면, 마치 전기선이 끊어졌을 때 다시 연결하면 바로 불이 들어오듯이,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세상 소리가 들려오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이

바로 자기 마음에 전달되어 삼위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때 더욱 기도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이 더욱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해 주시니 삼위의 생각에 따라 10배, 30배, 100배 쉽게 행하게 되고 삼위와의 사랑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니, 세상의 것이 일단 안 보입니다. 고로 기도할 때는 일단 세상의 것이 정지됩니다. 그때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집중해야 자기가 집중하는 한 가지만 중심하게 되고, 잡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로 기도할 때는 자기 생각의 자세를 갖추고, 정신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잡념과 잡생각이 없어지니 육적인 것들도 생각이 잘 안나고, 절대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맞추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면서 대화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기도>해야,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귀하게 깨닫게 되고, 실천까지 하게 된다.

23. <깊은 기도>를 하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24. <기도>하면 영계에서 ‘자기 할 일’을 환상으로 보여 주기도 하시고,

꿈으로도 계시해 주신다.

39. <깊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자기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기도하면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깨달아진다.

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밀하게 행하신 일이 너무도 많다.

기도하면,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깨달아진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증거하여라.

여러분은 일 년 동안 행한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저마다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잊은 것이 생각나서 얻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께 드릴 것이 생각나서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해주신다.

기도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신다.

월명동에 희귀종 새를 오게 하듯이,

기도하면 현실에 처한 불가능한 일도 이뤄 주신다.

깊은 기도와 대화, 간절한 기도와 대화,

수차례에 걸친 기도와 대화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일어난다

- 20. 기도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 27.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표적이 일어난다.
- 28. 기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표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자기 모순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순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기모순〉을 찾아서 잘라내고, 끊어버리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공적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세계로 와서 고통을 안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공적이 자기에게 돌아와
영이 영원토록 빛이 나고 누리며 살게 된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느끼고 행하게 되니, 현실을 확실하게 느끼며 살게 된다.

〈기도〉를 깊이 하면,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

- 5. 마음도 생각도 가만히 있으면,
잠자는 마음과 생각, 혹은 죽은 마음과 생각이다.
- 8.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눈과 같아서 눈으로 목적인 것을 쳐다보면

실감하고, 안 쳐다보면 실감하지 못하듯이,
생각하면 느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 느낀다.

13. 기도해야 영적으로 느끼고 행하게 되니, 현실을 확실하게 느끼며 살게 된다.

깊은 기도를 하면 영계에 들어간다

깊은 기도를 하면 자기가 육의 차원을 넘어가므로 영계로 들어가게 된다.
생각이 간다. 자기의 혼적 차원으로 들어간다.

육의 생각은 깨달아지고 느껴지나 영계 들어가면 영으로 혼으로 보게 된다.

1차원에 들어가면 꿈같이 보인다. 2~3차원으로 들어가면 영계 있는 것이 현실같이 만져진다. 영도 혼도 실체 사람같이 만져진다. 말도 실체화되어 보인다.

기도하면 꿈을 통해 혼적 체험을 한다

기도하면 꿈에서 혼이 겪고 체험하고 배우며 알고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꿈에서 자기 혼이 계시해 주니, 매일 배우고 분별하여라.

기도는 마음만 가도 자기 혼과 영이 가서 돕고 해 준다

2. <마음>만 가서는 안 된다. <행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기도>는 ‘마음’만 가도 된다.

고로 하나님께 이 잠언은 좋은데 못 쓰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분해서 쓰면 되지.” 하셨다.

3. 어떤 일은 ‘마음’만 가도 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행하기 전에는 되는 일이 없다.

4. <기도>는 ‘마음’ 만 가도, 자기 혼과 영이 가서 돕고 해 준다.

7. 저마다 기도하면 말이 실상이 되어 ‘자기 혼과 영’ 이 같이 행하나니,
마치 육신이 일하듯 ‘삼위의 영’ 과 ‘천사들’ 도 같이 행하느니라.
고로 실천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상대의 혼과 영’ 이 그 기도를 듣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니 힘이 나서 실제로 행하기도 하느니라.
이러하므로 모두 기도해야 되느니라.

8. 기도하면 육신이 일하듯 혼도 영도 일하고, 삼위도 친히 함께해 주시나
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니라.

명철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명철>하려면, 기도해라. 삼위와 일체 돼라.
이런 자는 ‘신령한 자’ 요, ‘노력한 자’ 이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복을 받는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기도하여 복을 항상 누린다.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 ◆ <의>도 ‘자기’ 가 행하고, <불의>도 ‘자기’ 가 행합니다.
-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의’ 를 행하도록 기도하여라.

<기도>는 ‘일’ 이라,

‘기도의 일’ 을 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져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기억 안 나던 것이 기억난다

기도해야 잊은 것이 생각나서 얻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께 드릴 것이 생각나서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 있어도 ‘기억’ 을 못 하면, 죽은 상태와 같다.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다. 기도해서 기억나도록 간구하여라.

기도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10. 기도하는 것은 도적을 지키며 근무를 서는 것과 같다.

11. 기도하는 것은 눈 뜬 자가 봉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것과 같다.

12.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로서 사탄과 마귀와 악한 자의 영과 육을 밤낮으로 지키며 문단속하는 자와 같다.

13.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실행해 주신다.

기도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축구 선수,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들은

연습을 많이 하고 시합을 해야 공이 오는 기회가 오면...

차고, 잡고, 넣고, 때립니다.

이와 같이 기회를 기다리는 자는 그 기회를 위해서 평소에

① 준비를 많이 하고,

② 기도하고,

- ③ 금식 조건도 세우고,
 - ④ 절식 조건도 세우고,
 - ⑤ 기술을 연마하고,
 - ⑥ 그것에 대한 지식을 터득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 그래야 기회가 와도 A급으로 잡고 행하여 얻고 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기도해야’ 기회를 알고 잡습니다.

6.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과 감사의 기도다.

〈기도〉는 ‘사랑’이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기도해라.

반드시 〈감사의 대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영광〉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감사〉와 〈행실의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 〈감사〉가 빠지면,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 〈감사의 말과 기도〉, 〈사랑의 말과 기도〉 - 이 두 가지는 〈부활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온전한 기도

- 첫째, 〈온전한 기도〉란 ‘흠이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 둘째, 〈온전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완전하게 기도하라는 말’도 됩니다.
- 셋째,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온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향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잠이 와서 조는 자세〉나 〈엎어진 자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 넷째, 〈마음과 생각〉을 ‘총명’하게 하고 〈정신 일도〉해야,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중언부언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처음부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고, 〈탄생〉하지 말고 〈잡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의식’으로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 다섯째, <기도의 내용>을 온전하게 알고, ‘순서 있게, 하나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 여섯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절대 믿고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다.
- 일곱 번째, <자기모순>과 <고칠 것>과 <근본 문제>를 드러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기도>이니, 잘 들어 주십니다.
- 여덟 번째, <섭리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시대를 증거하는 자들>과
<섭리사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이니, 잘 들어 주십니다.
- 아홉 번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 열 번째,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절대 지키며 기도’ 해야,
<온전한 행실의 기도>이니, 잘 들어 주십니다.

기도의 방법

1. 대화를 유능하게 하는 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하고 끝내듯이, 하나님 앞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핵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짧은 시간에 기도를 끝내게 된다.
2.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체계 있게 감동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
3. 항상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간구해야, 합당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4. 자기 주관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으니 들어주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게 하여 교정하게도 하신다.
5.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매일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을 위한 기도다.

기도의 순서

◇ 먼저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지난날 각종 도와주셨던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많고 많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청결한 마음이 될 때까지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살기 위해 회개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와 하나님 마음을 거스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며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성을 사랑한 죄를 회개하고, 각종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듯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와 가정, 섭리사와 민족, 세계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잘못 대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 다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육에게도, 영적으로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감사 기도다.

둘째, 회개 기도다.

셋째, 어떤 것을 할지 그동안 못한 것을 해 드리겠다는 기도다.

넷째,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다.

◆ <기도의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으니

첫째, ‘사랑’으로 삼위께 나아가기입니다.

둘째, ‘회개’로 삼위께 나아가기입니다.

◆ 특히 기도할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이 보입니다. <앞>이 보이니, ‘자기 할 일’도 보입니다.

고로 ‘자기 할 일’을 깨닫고 행하게 됩니다.

- ◆ 기도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 ◆ <기도>해야 ‘삼위와 대화’ 하게 됩니다.
고로 삼위일체가 대답하시고 허락하시어 행하게 됩니다.

- ◆ 기도할 때도 순서대로 해야 응답하신다.

먼저 성삼위께 경배하기.

감사하기.

회개하기.

해 드릴 것 말하기,

그다음에 구할 것 구하기다.

어른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듯,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려야 된다.

이것이 <경배>다. 자기 인사는 자기가 해야 된다.

가르쳐 줬는데도 80%는 안 한다. 철부지 신앙인들이다.

기도는 항상 매일 해야 한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도 늘 해야 됩니다.

<사랑>은 삼위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활 속의 사랑입니다.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해야합니다.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불같이 열심히 해야합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합니다. 1주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야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먹는 날만 배가 부르고 좋은 것입니다.

안 먹는 날은 여전히 배고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날만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꼭 기도해야 될 때> 하기도 하지만,
<기본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대화 기도>는 밥 먹듯, 잠자듯 해야 됩니다.

평소에 생활 속에 대화다

6.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다.

7.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할 기회가 없는 자다.

8.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타나서 대화하시고 말씀해 주신다.

1.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만나면 실제로 보고 느끼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기억나고 생각나기만 한다. 삼위와 예수님과도 그러하다. 삼위와 예수님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사진만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삼위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혹은 생활 속에서 만나서 대화하면 실체를 느끼게 되고 실감 있다.

2. 생각하는 것은 잊지 않게만 한다.

삼위와 예수님을 기도하며 만나고, 생활 속에서 만나야 실감 있다.

<삼위와의 사랑>도 평소에 하면, 기도하거나 대화할 때 힘들지 않다.

고로 그에게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바로 “기도해라.” 말씀하신다.

그러나 <평소에 삼위와 멀리 지내던 자>가 기도해서 대화하려면,
밤새워 해도 어렵다.

고로 성령님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밤을 새워 기도하느냐? 나 바빠.” 하신다.

그리고 멀리서 보시고는 안타까워서

“알았다. 낮에도 절대 졸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하고 한마디 하시고 웃으면서 떠나가신다.

<평소에 성령님과 일체 되어 행하는 자>는

밤새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과 금방 통하고 대화하고, 일찍 잔다.

1대 1 대화이다

사랑하는 자와 대화하는 일생 동안

단 한번도 3시간, 5시간, 7시간씩 기도를 못 해 보고

5분, 10분, 30분만 대화하고 끝날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는 일대일(1:1)대화입니다.

고로 하면 하루 종일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판생각만 난다.

대화의 기도를 해야 된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인가, 행여 사람이 하는 뜻인가
의심하며 보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1대 1로 기도하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신이다.

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찾고, 네 할 말을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과 네가 한 말에 대답하시거나 감동시키시고
혹은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

•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몸>도, <마음>도 집중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일도 하여 진정으로 해야 한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안 들을 수 없으시구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실상,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라 거리를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요즘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에게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며 따라오려거든 내 뜻을 배우고 알아라.” 하셨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하시기보다,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게 되고 알아듣게 된다.
2. 사람은 육이라 영이 와도 모르고, 말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찾으면 그때 말씀하신다.
3.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천사나 사역자를 한 명 세워서 말씀해 주어 부담이 안 되게 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네 마음에 그대로 전달된다. 내 마음과 심정이 네게 그대로 닿아야 나와 같은 마음이 되고, 그로 인해 네 영이 나 여호와와 닮아지고 일체 된다.” 하셨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

기도 시간은 성령과 절대 대화하는 시간이다.

대화는 사랑이니 기도로 사랑하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으면 1시간을 해야지,
가다 중간에 그치고 말면 행한 대로 사탄이 방해한다.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 준다.

-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일이 바빠져서
점점 기도시간을 빼기 어려워지고 결국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꼭 해서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없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60년 이상 기도생활을 해 보니, 이 방법이 <최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꼭 기도하면 기도의 힘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삼위와도 예수님과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대화를 하고 의논하며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조건>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해 놓은 시간>에 <온전한 기도>를 하여 <기도의 프로, 기도의 영웅>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기 바랍니다.
-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7.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능력이 있다.

30.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귀하다.

시간이 있는데도 다른 것에만 시간을 쓰지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 하여라.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아주 귀하다.

87.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 다.

88.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 다.

89. 또 <꿈>에 ‘내 혼’ 이 어디를 간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못 가고 있었다. 꿈에서 깨보니, ‘내 육’ 이 새벽기도를 간다고 한 시간에 안 가고 점점 미루고 있었다. 고로 즉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다.

기도는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기도>는 ‘일’ 과 같아서 하루 이틀 해서는 ‘표’ 가 안 납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일주일, 혹은 보름씩 일하면 ‘표’ 가 나듯이, <기도>도 오래 기도해야 ‘표’ 가 납니다.

- <생명을 쟁길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죄도 대신 회개해 주며, 간절히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 대로 행하게 됩니다.

1.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대화하여 숨긴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각종 사연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를 하여라.

2. 짧은 시간에는 깊이 기도할 수 없다. 대화도 짧은 시간으로는 깊은 것들을 의논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여라.

1. 성령님께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구하여라.

성령님이 ‘감동’ 을 주시고, ‘생각날 것’ 을 생각나게 해 주시니, 오래 기도하게 된다.

2. 오래 기도하면 <기도의 단수>가 높아지고, 깊이 기도하게 되니 그만큼 깨달아진다.

<기도>는 ‘일’ 과 같아서 하루 이틀 해서는 ‘표’ 가 안 납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일주일, 혹은 보름씩 일하면 ‘표’ 가 나듯이,

<기도>도 오래 기도해야 ‘표’가 납니다.

기도도 배워야 뜻있게 지루하지 않게 오래 한다

기도뿐 아니라 모든 만사를 배워야 잘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배워야 잘합니다.

6. 기도할 때도 신령하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하면 오래 한다.

7. 운동도 배워야 재미있게 오래 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뜻있게 지루하지 않게 오래 한다. 꼭 배워야 한다. 육신 일생, 영혼 영원토록 지구만 하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배우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가볍게 여기느냐? 생명과 바꾸게 귀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면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기도 힘들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

“너는 <나 여호와를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나를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만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듣고 합당하면 이뤄 주지 않겠느냐.

만일 기도하다 말면 <나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니,

어찌 내가 ‘할 말’을 하여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를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든지 꼭!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 <기도하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 <자기 할 말>만 하면,

<기도 천사>가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 기도>만 하고 끝납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아예 <직접 만나는 기도>를 하자.” 하셨습니다.

- 둘째, <하나님이 그동안 해 주신 것>을 감격하고 고마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만나 주시며 “내가 해 줬느니라.” 라고 마음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맞게 기도하면, 바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끼리도 <마음>에 맞게 말하면, 만나고 싶어서 바로 만납니다.

- 셋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하다 말지 말고,

‘할 만큼 충분히 하라는 말’ 이다.

<자기가 할 기도>를 다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 아니다.

<자기가 할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하나님을 만날 때’ 다.

▶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니, 꼭 <하나님>을 만나서 의논함으로 <하나님>이 ‘네 소원’ 을 이뤄 주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 이 두 가지 말씀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 사람끼리도 <상대>가 ‘할 말’ 을 다 해야 대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할 말’ 을 다 해야 나타나십니다.

-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끝까지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책임 분담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1. <운동>도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하듯이, <기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2. 운동하기 싫어도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하니, 건강하게 되었다.
<기도>도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하면, 건강해진다.
4. <기도>도 처음에는 하기 싫고, ‘이때 다른 일을 하지, 기도해서 뭐 하지? 시간 낭비다.’ 해도,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가서 매일 이상세계를 이룬다.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된다

<기도>를 하여도 정한 시간 ‘끝까지’ 해야 됩니다.

-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편하면 잊게 되고, 육적으로 가면 잊게 됩니다.
바쁘다고 다른 이유를 대고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한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기도>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해야 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짧은 시간에 이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하라. 묵도 명상기도 하지 말아라.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고 하면 조금 하다 맙니다.

할 말이 없어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은 <청산유수>로 기도하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말을 해야 알듯이, 하나님도 말을 해야 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의논하고 대화해야 된다. 육신 일생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체 되어 사는 삶이다.

16.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서 가만히 있게 된다.
17. <기도>는 경주가 시작되면 뛰고 달리듯이,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소리 내어’ 하나하나 기도해야 된다.
청중 앞에서 기도하듯이 ‘또박또박’ 기도해야,
‘집중’ 되어 무의식으로 안 들어간다.

23. 속으로 <묵도기도>를 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 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24. 새벽마다 밤마다 특별히 기도를 해 줄 테니, 같이 기도하자.
<자기 만들기 기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기도>,
<생명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기도>, <행하는 기도>,
<자기 어려움을 고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속히 들어 주실 수 있게 하자.

개인과 가정과 섬리사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하자.

33. ‘묵도, 명상 기도’ 하지 마라.

가만히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명상적 기도다.

‘명상과 묵도’ 는 이방인들이 하는 자기 정신적 수련에 속한 것들이다.

34. 기도는 한 마디 한 마디 똑똑하게, 분명하게 왕 앞에 보고하듯이 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는 말이니라.

-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기도하고, 명확하게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목적을 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음도 육신도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졸고 잔 것입니다.

-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할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말하다가 졸고 자면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이때는 다시 하면 됩니다.

잡념을 없애고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3. 기도하려고 눈 감고 ‘어떻게 할까?’ 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잡념만 온다.

“시작하라! 한마디부터 하라!” 하면, 잡념 그 망할 것은 사라져 망해 버린다.

4. 잡념을 저주해라. 10번만 하면 쭉 뺀어 죽어 없어진다.

5.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잡념이 방해한다. 그러니 잡념을 잠자게 하여 넘어지도록 집중하여 기도하면, 잡념도 놀라서 달아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기도할 때는 앞에서 한 말에 이어서 뒤에 할 말을 정신 차리고 계속 만들

어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만주의 주 전능자 왕 앞에 ‘또박또박’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틈이 안 생겨서 졸지 않고, 뇌에 잡념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면, 처음에는 졸지 못하게 한 손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꼬집으며 자극을 줘야 됩니다. (머리를 때리는 제스처) ‘몸’이 조는 것이 아니고 ‘뇌’가 조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킨다) <끝>

전능자와 대화하면서 조는 게 말이 됩니까? 개도 주인과 대면할 때는 졸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조는 것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뇌에 잡생각과 잡념이 들어오면, 어느새 졸음이 오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고로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자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한 말을 빨리 이어서 다음 말로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사이에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잡념으로 끼어듭니다.

★ 앞의 말에서 뒤의 말을 연결해서 하는 것에 신경 쓰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리듬이 끊어지지 않으니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기도가 ‘깊이’ 들어갑니다. 생각의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피곤해도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

1. 기도하다 틈을 주면 사탄이 방해한다.

사탄이 방해를 안 하여도 기도를 중단하고 그치면 ‘기도 완성’을 못 한다.

2. 기도할 때는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단둘이 만나서 사랑의 대화도 하고, 목적을 위해 함께 할 일을 하는 시간과 같다. 기도하다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그치고 잠깐 누웠다. 이때 한 장면이 보였다. 한 남자가 계속 내가 가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내 옆에 있었다. 고로 내가 함께 이야기하던 자와 이야기를 못 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는 우리 어머니였다. ‘기도하다 그치니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어머니는 성령을 상징함이었다.

다시 누워 기도하니 우리 어머니와 다른 자들이 같이 있었다. 내가 누워서 기도함은 모순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피곤해도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1시~3시까지 기도하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다 누웠다. 사탄이 그 틈을 탄 것이다. 1시~5시까지 기도하는데 깨닫도록 영적 현상을 보여 주셨다. 잠깐 허리를 펴고 계속 기도했어야 했다.

기도 시간은 성령과 절대 대화하는 시간이다. 대화는 사랑이니 기도로 사랑하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으면 1시간을 해야지, 가다 중간에 그치고 말면 행한 대로 사탄이 방해한다.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 준다.

기도는 살 만큼은 하여라.

잠은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기도는 살 만큼은 하여라.

<기도>는 일사천리로 자기가 하는 것이다.

23. <기도>는 일사천리로 자기가 하는 것이다. 계속 보내기만 하는 것이다.

24. <대화>는 한 마디라도 답을 받고, 그것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로 기도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의향이 생기도록 기도하여라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해 줄 마음만 있으면 해 주신다.

9.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해 주시도록 기도하여라.

3. 하나님께 말을 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향이 생기도록 자기 것도, 섭리 전체 것도, 민족 것도, 세계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의향이 생긴다. 하나님은 아무런 뜻이 없이는 행하지를 않으신다.

4. 의향은 뜻이기도 하다. ‘내가 이같이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말을 하면,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면 그 일이 될 수가 없으니 도와야겠다는 의향이 생긴다. 개인의 의안보다 더 큰 의안들을 말할 때, 하나님은 더욱 하시고자 하는 마음, 의향이 생긴다.

5.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누구 어떤 자들보다도 나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다.” 하셨다.

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다. 해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참으로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

안 해 주실 것도, 그냥 지나가실 것도 간구하고 매달리고 필요성을 말하고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마음에 의향이 없고 계획이 없던 것도 의향이 생기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고 행하신다.

21.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22. 선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와줬어도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모르면, 너희가 실망한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알고 행하게 기도하여라. 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 천지 만물과 너희인간을 창조했다. 그 뜻을 이루려 너희를 오게 한 것이다. 나의 뜻속에 구원도, 이상세계도, 사랑도 다 들어 있지 않느냐.” 하셨다.

기도할 때, 1차 기도만 하지 말고, 2차 기도를 또 해서 보다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진실로 기도하면,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행할 때 하나님은 항상 대답해 주신다.

응답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놓고 행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행해 주신다.

18.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19. 과연 전능자 하나님이 어디까지 돕고 함께하실까?

네가 행하면서 대해 보아라. 맘에 들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4. 불의가 아니라면 기도한 것은 믿고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도 걸리는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

기도했어도, 같이 이뤄야 될 상대와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5. 기도한 것을 끝까지 믿어야,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

6. 고장 난 기계를 맡기면 수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리가 끝나면 맡긴 자에게 돌려줘야 고친 값이 들어오니, 기계를 고쳤으면 놓아두지 않고 바로 준다.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을 때가 되어 이루시면, 이룬 것을 주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기 때문에 주신다. 그러나 내가 원하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합당치 아니하므로 주시지 않는다.

기도했으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때를 맞춰서 행해야,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급하다고 자기 때도 오지 않았는데 행하면, 고생만 더 하게 됩니다.

“진정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을 해 주시려고 <처음 것>은 안 되게 하고 <다음 것>은 되게 하여 아예 ‘네 것’ 이 되게 해 주신다.
 <처음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동의 것’ 이 되었고, <다음 것>은
 ‘너 혼자 사용하는 것’ 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이 해 주신다.
 이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해라.” 하셨습니다.

1. 삼위와 예수님은 주인이라 다 아신다.
 고로 진실로 의문된 것을 물어보면 답을 주신다.
2. 궁금한 것은 꼭 기도하여 삼위와 예수님께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된다.
 자기 자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
3. 삼위와 예수님께 물어보면 생활할 때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대답하시
 고,
 꿈에서 계시해 주신다. 또 자기 마음속에 대답해 주신다.
4. 특히 힘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삼위와 예수님을 부르면,
 바로 힘이 오고 기도가 잘 된다.

기도를 보물이 되게 하여라

1. 기도를 보물이 되게 하여라.
2. 기도는 보물이다.
3.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키면 소금이 만들어지듯이,
 기도를 간절하게 끝까지 하면 보물같이 된다.
4. 고구마를 익히고 엿기름물에 풀어서 삭힌 후 솔에 넣고 오랫동안 졸이
 면,
 고구마 조청이 되어 고구마 꿀이 된다. 이와 같이 기도도 계속하면 꿀같이
 된다.
5. 꿀벌들이 어떻게 벌꿀을 만드는지 보아라. 꿀벌이 꽃을 빨아서 꽃가루
 를 모으고 꽃꿀을 삼켜 배 속에 저장해 온 후, 다른 벌에게 게워 내어 전
 달한다. 여러 번의 전달 과정을 통해 벌들의 각종 효소들이 섞이고 수분이

증발되는데, 이것을 꿀방에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하면 꽃꿀의 자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벌꿀이 된다. 이같이 기도도 처음에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 육적 기도를 하다가 끝까지 가면 영적 기도가 된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으면 꿀 같은 기도, 보석 같은 기도가 된다. 누구나 처음에 육성 기도를 하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영적 기도가 된다.

확실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나 생활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감히 응답하실까?’ 하고 간절하게 찾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랑의 뜻을 펴시니 신약시대같이 하지 않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대화하면 응답도 하신다. 깨달음으로, 혹은 마음으로 느낌으로, 혹은 꿈으로, 생시에도 상징으로 대답도 하신다고 하셨다. 시대 사랑의 창조 목적 대상들이니 간절하게 구하고 대하여라.

1초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였기에 받으신다. 한마디라도 기도가 된다.

25. 할 일을 조금씩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열심히 하면 바로 끝낸다. 기도도 그러하다.

26. 기도를 시원찮게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확실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

27.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생명’ 과 같다.

28. 사람끼리도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는 말을 듣고 대답해 주듯이, 하나님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해 주되 더 좋게 해주신다.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작으나 크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진실한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애원하며 간구의 기도를 해야, 위력이 있다.

48.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하는 말>은

‘자기 뇌’에, ‘자기 마음’에 절도록 들어야 된다.

49. <자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정성을 다해서,

합당하게 할 말을 넣어 간구하여 잘 만들어서 드러라.

4.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삶의 길’이 아예 달라진다.

5. 기도도 <생각과 정신을 심혈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와

<보통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의 길’이 아예 다르다.

1.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대답이 마음에 느껴져 왔다.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셨기에 내 마음에 느껴져 온 것인가요? 아니면 내 의지로 대답이 온 것인가요?” 하고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정으로, 진실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나 여호와의 대답이 네 마음에 갔느니라.” 하셨다.

2. 하나님께 “방금 물은 것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맞는지요?” 하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내가 대답한 것이다. 내가 대답했어도 네가 안 믿으면 모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네 기도를 듣고 대답해 준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여라.” 하셨다.

마음과 생각이 극히 감동될 때까지 기도하라

1. 마음과 생각이 극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하나님과 통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2. 마음이 핵이다.
마음과 생각이 극히 감동되면, 몸까지 감동되어 쉽게 행하게 된다.
3.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극히 감동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기도는 표가 나게 해야 한다

기도는 조금하더라도 ‘간절히, 표가 나게’ 해야 된다.
표가 나게 해야, 운명이 바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기도해서 얻는 것을 싫어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라.

삼위와 예수님을 각각 불러야 줄 것을 주시며 함께 도우신다

2. 하나님만 찾아도 안 되고, 성령님만 찾아도 안 되고, 성자만 찾아도 안 되고, 예수님만 찾아도 안 된다. 골고루 합당하게 부르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각각 부르면서 구하고 찾아야, 각각 줄 것을 주시며 돕고 함께하신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 지금 이때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자>는 성령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물어 보기 바랍니다.

- <성령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네 계획들은 하나님께 맞지 않다.
그가 오묘하고 신기하게 행하시도록, 전능자를 인정하며 기도하여라.
간구하여라. 그의 구상이 있으시다.

삼위와 이 시대 합당한 대화를 해야 한다

삼위와 이 시대에 합당한 대화를 해야 된다.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합당하지 못한 위치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심정을 알아 드리는 기도

- <심정을 알아 드리는 기도>가 ‘평소의 기도 10번’ 보다도 더 큼니다.
<심정을 알아주는 기도>를 하나님과 성령님이 더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우리가 구한 것들’을 들어 주시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 <하나님의 심정>을 알도록 ‘심정의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심정>이 와서 깨닫게 됩니다.
-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드려야,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로 삼위의 심정을 깨달아라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심정’은 행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고,
‘행동으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심정’은 기도함으로 그 마음과 심정을
느껴서 깨닫게 된다.

모두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
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 기도하여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기도할 때도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힘없이 하면,
약해서 기도한 것이 실체를 이루지 못하고 보통의 위치에서 끝나게 됩니
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이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굳건하도록 깊이 기도해야 한다

◇ 기도하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성령으로 일체 되어 굳건해야 합니
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네 머리를 굳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굳건해집니다.

마음이 굳건하도록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수록, 마음과 생각이 확실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계에 들어가 보게 되고 실제로도 겪게 하셔서 보고 굳건해
지니,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큰 기도를 해야 한다

5. 큰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꼭 오신다.

큰 기도를 하면 많은 생명들에게 해당되니 더 돕고 함께해 주러 오신다.

6. 개인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꼭 와서 도우신다.

프로급 기도를 해야 한다.

- <기도의 프로급>이 되면, ‘반복하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던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골짜기의 기도’,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합니다.

- 하나님도 <기도>를 듣고 들어볼 만해야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들어볼 만해야 귀를 기울이지,

별말이 아니면 인사치레로만 들읍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급’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들어볼 만해야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 축구도 <프로 선수들>이 뛰어야 볼만해서 쳐다보지,

<일반 사람>이 뛰면 잘 안 쳐다봅니다. <일반 사람>이 볼을 차면,

‘동네에서 볼을 차네.’, ‘운동하네.’ 하고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프로 선수들>이 볼을 차기 시작하면, 우러러보고 응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전도>도 <강의>도 <말씀>도

모두 전문적으로 배워서 ‘잘하고 능통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 모두 <기도>를 전문적으로, 프로급이 되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함>으로 인해 <환난>에 시달리게 되고, <곤고

함 속>에 살게 되고, <사탄과 마귀>가 쳐들어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끌

려가서 ‘그들의 주관권’에서 살게 됩니다. <기도의 영웅들>은 여호수아

같이, 다윗같이 행하여, <사탄>과 싸워 ‘하나님의 생명들’을 되찾아 옵

니다.

깊은 기도를 하여라

깊은 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흑암도 물러가고 빛에 속하여 깨닫기도 하고 보게도 된다.

빛에 나왔기에 보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깊이 하여 자기 심령이 맑게 된 자는 감동이 더욱 강하게 온다.

기도할 때는 기도를 정말로 깊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상달이 안 된다.

자기의 기도로 끝나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나니,

이는 평소에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영의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나라.

깨끗이 하려면 기도를 깊이 해야 한다

깨끗이 하려면,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청소하듯이, 누구나 <자기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수시로 깨끗하게 씻듯이,

기도로 자기 모순과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 사탄을 먼저 쫓아내기다.

◇ 기도하기 전에, 사탄을 먼저 쫓아내기입니다.

◇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사탄·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사탄·마귀가 침범하고 꼭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혼과, 자기를 지키는 천사들에게 물리치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육이 강하게 사탄을 물리쳐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신령한 생각을 만들어라

31. 운동도 배우고 하면, 안 배우고 할 때보다 30배, 50배 더 잘하게 된다.

생각도 배우고 자기 생각을 신령하게 만들고 살면 30배, 50배 더 이상적인 생각을 하여 행케 되고, 더 얻게 된다. 더 잘 분별하고, 알고 행하여라.

32. 기도하여 신령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라.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생각에 맞춰 생각을 해야 한다.

7.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 제목

◆ 기도만 해도 그 속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자기를 위한 각종 기도,
- 복음을 위해 갇힌 자를 위한 기도,
-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
- 섭리사를 위한 엄청난 기도,
- 민족을 위해 낱알이 기도,
- 하나님이 세운 자를 위한 기도,
- 세계를 위한 기도,
-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를 위한 기도,
- 아픈 자, 힘든 자를 위한 기도,
- 사업하는 자들, 목회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강의하는 자들, 관리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이 늘 잘되게 기도,
- 오고 가는 자들이 사고 안 나게 기도,
- 우리를 괴롭히는 악에 속한 자들과 생명을 거짓으로 띄어 사냥하는 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12가지 생명을 위한 기도

1.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지 않게 기도하라.
2. 신앙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된 것을 기도하라.
3. 억울함을 당하여 고통받지 않게 기도하라.
4. 섭리사의 생명들이 억울하게 당하여 육신도 영도 죽지 않게 기도하라.
5.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신앙이 죽거나 심판받지 않게 기도하라.
그 본인도 기도하고 회개하게 기도해줘라.

6.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여 모르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7. 자기를 위해 매일 기도하라.
육신 생명과 영의 생명이 죽지 않게 기도하라.
8. 생명들이 마귀, 귀신, 사탄, 악인들로 인해 죽지 않게 기도하라.
9. 각종 죄를 짓고 사망에 죽지 않게 기도하라.
10. 사탄과 악한 자가 생명을 뺏어 가니 기도하고 관리하고 말씀 주어 튼튼하게 하라.
11. 민족 위해 기도하라.
12. 세계 위해 기도하라.

휴거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해야 ‘구원’도 받고, ‘휴거’도 이루고,
‘각종 기적과 표적’도 이루고, ‘황금천국’도 상속받게 된다.

세상에서 최고 큰 영광인 휴거를 이루어 주셨으니,
휴거된 자들로서 ‘큰 정성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도리다.

휴거되고 나서 그냥 태만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휴거가 점점 시들어 버리는 꽃같이 되고 만다.
저마다 <기도>로 ‘휴거된 영과 육을 온전하게 관리하기’ 다.
<기도>로 ‘시대 섭리사의 가치를 깨닫기’ 다.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
“영의 생명, 혼의 생명, 육신 생명이다. 육신은 사고 나지 않게 기도해

주고,

영혼은 육이 죄를 지으면 죽으니 범죄 하지 않게 기도해 주고,
회개도 해 주어라.” 하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생명을 위해 모두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과 형제들의 생명, 민족과 세계까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도 더욱 보장됩니다.

<구원해야 될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어라.

그 기도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육과 영이 구원받아야 될 때’에 도움이 된다.

3. <생명>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하여라.

어디를 가든지 최고로 먼저 할 일이다.

11.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기도>는 다 받으신다.

그만큼 필요하고, 합당하기 때문이다.

항상 <생명을 위한 기도>를 꼭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도를 하여라.

12.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기도’를 해주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셔도, ‘그 생명’이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명 관리를 직접 가서 못 해 주면, 기도로 관리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생명을 관리해 주신다.

• <생명을 쟁길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죄도 대신 회개해 주며, 간절히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 <힘들고 어려운 생명들>, <시험에 든 생명들>, <오해하는 생명들>, <책임을 못 한 생명들>이 있으면, 험뜯고 욕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도 말고,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 <진정한 기도>, <진정한 마음>이라야,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 <자기 생명>같이 보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해야, <생명>도 ‘그 심정’을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 항상 생명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 <생명을 잘못 다룬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71. 구해서 얻은 것도 자기가 제대로 안 하면 넘어간다.

자기 자신이 문제다. 세상을 얻고 물질을 얻었어도 자기가 병들어 죽으면 끝난다.

72. 자기가 잘 되고 생각을 잘 하고 마음이 잘 되게 고하라.

자신이 잘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듯이 해 버리니 잘 될 수밖에 없다.

기도하면 ‘두려움 · 불안함 · 걱정 · 염려’가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니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도함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이 더욱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다스리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라도 마음과 생각을 잡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기입니다.
귀한 물건을 지키고 관리하듯, 자기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기입니다.

가정 민족 세계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여 얻는 것도 크지만
가정, 민족, 세계를 위해, 섭리사를 위해 기도해야
더 얻게 되고, 더 크게 얻습니다.

개인만을 위해 기도하면 공적이 적다.
가정, 민족, 섭리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엄청난 공적을 세우는 것이다.
작은 문구점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대형 마트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계 수출 무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기도도 개인뿐 아니
라 민족, 세계를 위해 해야 공적이 크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차원대로 한 명, 한 명 ‘선악 간의 행위’ 대로 갚아 주며 뜻을 펴신
다.

고로 ‘자기’ 뿐 아니라 ‘가정’ 과 ‘섭리인,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
온 세계 백성들’ 과 ‘세상’ 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작은 기도〉는 ‘자기에게 속한 기도’ 이고, 〈조금 큰 기도〉는 ‘가정
단위, 교회 단위의 기도’ 이고, 〈더 큰 기도〉는 ‘섭리사, 세계 교회, 민
족과 세계, 경제와 정치와 국방을 위한 기도’ 다.

마치 자기가 책임을 지듯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한다.

<형제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 섭리사에서도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미워할 것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무지와 감정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해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미워할 자도 아닌데 미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섭리사 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오시고, ‘천사들’도 옵니다.

-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 <섭리사의 일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라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에 들고 소외감을 가질 때가 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사고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각종 해를 받게 되었느냐고 한다.

또, 신앙생활도 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고 안 깨우쳐 주고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각종 것들을 말하며 서운하게 생각하고 소외감을 갖는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도 있고, 믿어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사는 자가 많다.

그러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니 가까이 있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스스로

짜증내고 불평불만도 하게 된다. 모두 자기가 해결할 문제들이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라고 하셨다. 자신이 미리 평소에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이 올 것도 생각하며 무섭도록 완벽하게 했어야 된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탄을 멀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가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되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 어느 때는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와서 각종으로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못 하게 방해하고, 전도도 못 하게 방해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게 방해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방해하는 등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은밀하게 끼어들어서 각종 고통을 주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육신을 쓰고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역시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8. 기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삼위와 멀어지고 육적 생활을 하게 된다

- 4.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여 사탄의 몸으로 써도 모른다.
- 5.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기중심으로 흘러가 행하게 된다.
- 9.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계속 조금씩만 자는 것과 같고, 운동을 조금만 하고 안 하는 것과 같고, 밥을 조금씩만 먹고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서 결국 약해지고 힘이 없어 쓰러지게 된다.
- 10. 기도하지 않는 자는 육도 영도 신앙이 약해진다. 신앙의 맛을 잃게 되고, 필요성도 잃게 된다.

21.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안 하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기도는 대화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라. 가령 자기와 함께 두 사람이 있다 하자.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면, 쳐다보는 자기는 그들이 자기에게 말을 안 하니 상관없지 않느냐. 상관이 없으니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 하나님도 그러하니, 대화라는 기도를 안 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하셨다.

- 3. 기도생활을 안 하면, 육적으로 살게 된다.
- 8.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열심히 해도 허전하고 곤고하고 기쁨도 재미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게 된다.

기도 안 하면 신앙이 넘어진다

-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성전이 무너진다.

12.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다.

책꽂이에 책 한 권이 꽂혀 있었다.

이때 기도하다 잠이 와서 졸았더니 책꽂이의 책이 넘어지는 것이 보였다.
기도 안 하면 신앙 넘어진다는 계시였다.

13.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삶이 넘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침범한다

- <기도>를 쉬면 ‘사탄과 악’이 침범합니다.

기도를 안하면 시험에 든다

늘 생각 잘하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해라.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될 일도 잘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과 걱정의 날들을 못 막아낸다

7.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고통과 걱정의 날들을 못 막아낸다.

8. 기도했기에 앞날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된 것을 모른다. 기도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게 되면 그제야 알게 된다.

기도를 쉬면 은혜의 강이 마르게 된다

- <기도를 쉬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 든 것’과 같고,
‘도랑이 마른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쉬면 ‘은혜의 강’이 마르게 됩니다.

차의 기름 떨어지듯 모두 중지하게 된다

- <기도>가 없으면,
<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서 ‘모두 중지’ 하고 말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육신>은 기도하지 않고 태만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누구든지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놓으면, 반듯하게 가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과 같다.

9. 기도와 실천 (책임분담과 기도)

기도 해 놓고 행해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새벽에 잠자면 성령님도 예수님도 깨워는 준다.
줄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니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도우신다. 이 정도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을 깨달아라. 나머지는 자기가 굳세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일’ 이라서 기도함으로 해결되지만,
이것을 알고, <책임분담>과 <기도라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자기 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꼭 ‘기도’ 로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실천하며 ‘행실의 차원’ 을 높여야 된다.
기도만 하면, ‘기도 차원’ 만 높아진다.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행해야 ‘실제 위치’ 가 높아진다.

기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기도 약속>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자고 약속해 놓은 것’ 이다.
약속했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든 안 오든
‘약속’ 을 지키러 오셨다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기도’ 를 약속했든지,
‘어떤 다른 것’ 을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자기가 기도해야 한다

아픈 자들도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야 남이 기도해 준 것보다 빨리 낫는다.
이는 자기가 아픈 것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타인은 그렇게 길게 밤새워 기도할 시간이 없다.

10. 자기가 기도해서 이뤄졌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이뤄졌는지, 혹은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시는데 기도로 동참했는지 분별해야 된다.
11.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두고 많은 자들이 기도하여 이뤄진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기도로 동참하여 이뤄진 것도 있다. 대개 아무도 모르는 개인의 것은 자기가 기도해서 이뤄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어 자기가 책임을 하여 이뤄지기도 한다.

10.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는데로 행하신다

121. 하나님께 자기가 잘되게 기도하든지, 섭리사가 잘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느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잘되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잘되게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시며, 자신의 뜻을 펴는 데 쓰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잘되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것을 잘되게 해주면 자기에게서 끝난다.

122. 가령 하나님께 돈을 천만 원 드리면서 “나 좀 잘되게 하는 데 귀히 써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앓을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음식을 사다 주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데 쓰신다. 그리고 돈을 준 자도 같이 그것을 평생 쓰게 해 주신다.

약속한 것을 하였으면 하나님이 말을 안 했어도 그 행한 일로 응답했다고 생각해도 된다.

◇ 자기가 하나님께 행할 일을 하고 그로 인하여 축복받았으면, 그 역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응답했으니 축복을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으면 굳이 전능자 하나님께 직접 말로 어렵게 응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꿈으로나 이상으로 깨닫게 해 주시면 그것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면 응답을 굳이 못 받았어도 행한 일을 응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했으면 하나님께 “잘했다.” 라는 응답을 못 받았어도 자기 할 일을 응답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만, 최고로 했느냐, 보통으로 했느냐에 따라 <응답>도, <자기 행할 일>

도 차이 나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어느 때는 응답이 마음으로 옵니다.

◇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혹은 자기를 상대하는 자에게 응답을 받아야 확인이 되기에, 응답을 받으려 합니다.

응답, 곧 대답을 못 받으면 ‘내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하며 자신 없어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응답이 없어도 자기가 온전하게 행한 일로 자신이 ‘옳다’ 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약속한 것을 하였으면 하나님이 말을 안 했어도 그 행한 일로 응답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에서 잊으면 기도한 것을 주셔도 모르고 산다

13. 기도해 놓고도 <생각>에서 잊고 있으니,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께서 ‘기도한 것’ 을 주셔도 모른다. 모르면 못 받게 되고, 받아도 모른다. 하나님은 ‘구한 자의 때’ 에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에 맞춰서 행하신다.

14. 하나님은 주실 때 ‘구한 자의 생각대로’ 안 주시고, ‘그 처세’ 에 따라 주신다. <구한 자>가 ‘전체’ 를 원했어도 먼저 ‘반’ 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저 주기도 하신다. 고로 분별해야 된다.

15. 구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덕을 고이고 쳐다보며 사랑으로 귀히 바라야 된다.

11.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5. 자기가 기도하기에 따라서 -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된다.
6.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간절한 기도’ 다. ‘끝까지 하는 기도’ 다.
7.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합당한 기도’ 다. 그래야 들어 주신다.
8.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은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다.
10. 형식의 기도, 정성 없는 기도,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12. 예수님과 기도 사연 / 기도 생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조건을 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조건을 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탄도 이겨버리고 없애 버리는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령한 조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서 설교하듯이 큰 기도를 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금주 주일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서 5장까지이고,
주제는 “전도의 빛을 발하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의 빛을 발하였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겠습니다.

4장에 나온대로 먼저 전도하기 전에 큰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이나 조건을 세우고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사망에 있는 생명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먼저 굴복시킨 후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로 확실한 반석 같은 신앙을 사탄들이 알게 되고, 이에 굴복시켰으니 전도하는 데나, 자신에게 인간을 통하여 사탄이 직접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이상 붙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기도를 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맞고도 행하신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신 길입니다.
악한 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죄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어떠한 분노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의 길, 의로운 길로만 가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며 가셨습니다.

(눅 23:34)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신 근거를 남겼기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요 12:47)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

내가 예수님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사람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 것이 참 훌륭하고 위대하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하니까 참으로 신 같은 존재자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그 인격을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다니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그런 입장을 계속 해나가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주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13. 기도 사연 / 기도 생활

◇ 선생도 10대, 20대 때 고생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10~15도일 때 대둔산과 기도굴로 기도하러 다녔습니
다.

그때 노방전도 하러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성경도 최고로 많이 읽
고 예수님께 배우고 깨달아서 성경에 인봉된 말씀을 시대 말씀으로 받고
새 시대를 예수님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극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최고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때 배고프고 가난하
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지난날 힘들 때 하
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고, 기도하고 가까이했습니
다.

- ▶ 첫째, <기도 동산>에서 처음 ‘산(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 ▶ 둘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성장하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니,
<더 깊은 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 ▶ 셋째, 겨울에는 추우니 <광산 굴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릿굴 굴>, <천덕 굴>, <양합판 굴>에서 기도했습니다.
- ▶ 넷째, 성장하고 크니 더 기도해야 되기에 멀리 가서 <대둔산>에서 기도
했습니다.
<대둔산 절벽>을 다니다가 절벽 아래로 텅굴어 죽음에서 살아나 다시 기
도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추위>와 <죽을 고비>와 <배고픔의 고비>에서 살아나서
<시대 말씀>을 받아 전하여 <시대 하나님의 뜻>을 뿔었습니다.
- ▶ 다섯째, 서울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배방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 ▶ 여섯째, 1999년에 <미국>에서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 ▶ 일곱째, <남가좌동>에서 <월명동 땅>을 사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생가터의 <함석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월명동>은 운명이 좌우되어 ‘섭리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못 샀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합니다. 고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 여덟 번째, <동그래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어 ‘그 산’을 사게 해 주셨습니다.

▶ 아홉 번째, <별봉정>에서 40일 동안 새벽기도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어 ‘그 산’을 사게 해 주셨습니다. 산 주인은 이미 자기가 염소를 기르려고 산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60년 동안 기도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어 <섭리역사>를 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큰 조건을 세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머지 절식 기도하면서 70일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건을 세우는 역사를 선생님이 먼저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고, 거기서 더 위대한 말씀을 더 시인케 만들고, 거기서 더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도 사탄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도 하고, 명예의 시험도 하고, 먹는 것 시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이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70일 동안 굶다가 피골상접이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멈출 뻔했습니다.

못 먹으니 계속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70일 동안 굶어 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그때 열다섯 번은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내 눈을 까 보더니,

“죽었다. 이제 못 산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적>으로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말세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1999년 음력 7월에 몽골에서 대마왕이 온다. 그때 해가 어두워진다. 대(大)심판을 하고 평화로 다스려 평화의 역사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예언의 때, 양력 8월이 다가오니 심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 해외로나 국내 멀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 시민들 70%가 말세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 파리를 빠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서 이야기하셔서 미국에서 21일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을 마치고 바로 그 이튿날 프랑스로 가서 9개국 사람들을 모아 놓고 3일째 되던 날에 그곳에서 평화 행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1999년도에 왜 21일 금식을 한 줄 압니까. 미국에서 21일 금식을 했는데 왜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다녀야 하는데 내가 양심에 가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계속 21일 동안 한 것입니다.

“너 정말이여? 그들을 용서하면 앞으로 핍박을 또 하는데...”

“좋습니다. 다 용서 해주십시오. 다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다 용서해주십시오. 나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용서해줍니까. 다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용서해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용서해줬습니다.

◆ 성자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중요한 해>이니 더욱 깊이 기도해라.” 하시어, 선생은 올해 3월부터 다시 <6개월 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섭리역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 종교와 사회의 각종 비리와 죄와 썩는 것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 <절식 기간> 동안 민족과 세계적으로 특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부패한 것들이 법으로 처리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왜 성자께서 올해 내게 더욱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감동 감화로 지켜 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게 기도한다.

- 특히 아픈 자들 위해 나와 함께 서로 기도해 주자.

- 시대 환란 속에 증거하며 행하는 자들을 위해 모두 기도해 줘야 한다.

기도해 줄 것, 안 해 주는 자는 형제가 고통에 떠내려가는 것 보고도 쳐다만 보는 자와 같고, 힘들어 쓰러진 자를 쳐다만 보는 자와 같다.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면 자기 힘이 그에게 간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었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늘 죽지 말고 털끝도 상하지 않고 살아 돌아오라고 조건 기도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둘째 형 정광석 목사는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데도 극기봉까지 가서 동생이 베트남 전쟁터에서 꼭 살아 오게 해 달라고 특별 조건을 세우며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날마다 총알이 빗발치는 죽음의 위험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라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극기봉에 가서 신발 벗고 맨발로 기도했답니다. 이같이 꼭 살아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신을 벗어 놓은 이유는 혹시 개오지나 호랑이가 자기를 물어 가면 신발을 보고 시체를 찾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선생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기도로 3년 동안 최고 위험한 곳에서 전쟁을 하고도 살도 안 까지고 다치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30여 번 이상 꼭 죽을 것인데 살아 왔습니다. 몸에 가시 하나 박히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14. 월명동과 기도

<월명동의 큰일들>도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 하니, 오늘날같이 개발하고 건축하게 하셨다.
만들기 20년 전부터 기도했다. 만들기 10년 전부터 거의 ‘구상’ 이 나왔다.

* 기도해서 - 월명동도 개발했습니다.

불가능한 땅을 살 때도, 돌을 구할 때도, 돌을 세울 때도,
그 어느 것 하나에 <기도>가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 <몇 번 기도하고 마는 자>는

마치 ‘월명동에 돌 몇 개만 쌓고 자연성전을 완성하려는 자’ 와 같습니다.

고로 하나 마나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돌을 쌓아 자연성전을 완성하듯이,
완성될 때까지 의를 쌓으면서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에 갈 때마다 삼위일체는

‘간구하고 묻는 것’ 을 말씀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깨닫게 해 준다고 약속하셨다.

고로 월명동에 가면, 기도하고 대화하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와 대화하는 궁이다.” 하셨다.

◆ 처음에 <야심작 돌 조경>을 만들 때는 ‘어떤 구상’ 으로 만들었는지, 선생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선생이 처음에 ‘시멘트 계단’ 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돌’ 이라는 자료만 말씀하시면서 ‘돌 조경’ 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상>이 ‘돌 조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세히 ‘어떤 것을 구상하여 만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상>대로 돌이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아
‘여섯 번째’에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 그러다가 <자연성전 건축 기간>이 끝나고, <성약시대 초창기인 성약의
구시대>가 지나가고, <성약시대의 새 시대 격인 휴거 때>가 되니, <휴거
시대의 끝자락>에 비밀을 드러내며 말씀하셨습니다.

★ 곧 <월명동 지형>도 ‘하나님의 백보좌를 상징하는 의자 형상’임을
밝히셨고, <야심작>도 ‘하나님의 백보좌를 상징하는 의자 형상’으로 만
들게 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 <절식 기도 5개월 28일째>에 성자는 이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는 8월이었습니다. 성자가 휴거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9월이 되기
바로 직전에 성자는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5. 기타 기도 말씀

기도에 대한 비유 말씀

- 또 성령님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 ▶ <기도>는 ‘의사가 아픈 자신을 치료해 주는 시간’과 같다.
기도를 꼭 해야, ‘자기 병든 신앙’이 치료된다.
- ▶ <기도>는 ‘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하는 시간’과 같다.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길’을 못 간다.
- ▶ <기도>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이다.
<축복을 주는 시간>에 사명을 못 하면,
신앙도 육신도 ‘가난의 병’이 들어 살게 된다.
- ▶ <기도>는 ‘호흡’과 같다.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같이 급하고, 중한 일이다.
- ▶ 그러므로 <약속한 기도 시간>을 절대로 지켜 기도해야 된다.

1. 기도는 음식 먹는 것과 같다.

2. 새벽에 기도하기 전, 꿈에 보니 잔치에 쓸 음식들을 골고루 만들고, 만든 음식을 모두 큰 장소로 나르고 있었다. 성령께 무슨 음식이냐고 물으니, “기도의 음식이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같이 여러 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듯이 가지가지 기도하여라.” 하셨다.

16. 성경인물과 기도

모세, 에스더, 다니엘, 엘리야, 예수님의 기도

- ▶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 ▶ <왕비 에스더>도 이스라엘 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 결국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오히려 ‘하만’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 ▶ <다니엘>도,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사명’을 하셨습니다.
-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같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이같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들>을 지극하게 사랑하시어 말씀하기를
“내가 만나 줄 테니, 그때 <너의 소원과 섭리사의 소원>을 고해라.
만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기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꼭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죽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생활을 많이 해서
아버지와 함께 개인 승리 조건을 세웠고,

그의 손자 야곱도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서 가정 승리를 하는데 조건을 세웠습니다.

엘리아와 기도

교역자와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역자와 지도자가 졸면 ‘악평자, 이단’에게 당합니다.

몇 번 기도한다고 해서 ‘악’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 때까지 기도입니다.

엘리아는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자기 앞의 거짓된 자들 850명을 모두 멸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모두 엘리아같이 사생결단하고 해야 됩니다.

다윗과 기도

7. <다윗 왕>은 기도의 용사였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애원하는 기도’를 했다.

애간장 타는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하며 매달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기도’를 했고, 기도를 시적으로 읊으며 간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감동되게 해 드렸다.

8. 다윗은 딱딱한 기도를 하기보다

‘감동적인 기도’, ‘읊는 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기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는 기도’, ‘행하고서 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다.

9. 다윗은 늘 하나님만 최고로 생각했다.

평소 때나 전쟁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정신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

서.” 라고 기도했다. -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이 자신과 친하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 놓은 것이다.

솔로몬과 기도

◆ 오래 살아도 모르면 못 합니다. 고로 ‘짧게 산 격’ 이 됩니다.

〈지혜〉를 받아서 알고 행한 자는

같은 나이라도 ‘10년, 20년, 30년 더 산 격’ 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며,

〈최고로 오래 사는 방법, 최고로 많은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 솔로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꿈에 받았습니다.

〈꿈의 계시를 받은 자〉는 ‘지혜를 받은 자’ 입니다.

17. 기도에 대한 성경구절

▶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도 이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 <잠언 15장 8절>

•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하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약 역사의 발판>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신약의 성경’도 많이 쓰게 되고, ‘신약역사의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 잠언서 15장 29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나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하셨습니다.
-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내가 ‘정녕코’ 행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조건〉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해 놓은 시간〉에 〈온전한 기도〉를 하여 〈기도의 프로, 기도의 영웅〉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기 바랍니다.
-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삼상 12: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 안하는 죄를 범치 말라.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함으로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해결되게 되어 있다.

〈시 88:13〉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

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항상 아침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있다.

〈사 58:3-9〉 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
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라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
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
라 하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주
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벧전 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
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